

다문화가정의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 은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다문화가족은 278,036가구로 추정되며 2012년에 비해 4.3%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가구 구성 중 부부, 자녀, 부부의 부모 형태로 이루어진 대가족이 12.6%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에 있어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은 대가족 형태를 띤 가족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사회로 평등주의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는 하나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특수한 갈등관계로서 한국인 며느리하고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대가족 가족구조를 가진 다문화 가정의 고부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문화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어야 하는 시어머니의 힘겨움은 배가 될 것이다(Cho, 2009).

외국인 며느리를 둔 노인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Gong, 2009), 문화의 수용정도,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Park & Noh, 2014)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 당혹감, 분노, 물리적 마찰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Gong, 2009). 우리나라 노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사용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수동적인 대처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 & Lee, 2002; Seong & Hwang, 2013).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 소통 등의 어려움을 가지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경우, 외국인 며느리와 관계에서 혼자서 참아내는 수동적인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 Lee, 2010; Seong, Kwon & Hwang, 2012). 또한 다문화 가정의 노인은 상당한 수준의 노인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노인우울의 대표적인 증상인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 신체화는 임상적인 진단 및 개입이 요구되는 심각한 수준이다(Kim & Kim, 2013). 특히 경기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60세 이상의 다문화가정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우울증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26.7%가 유의미한 노인우울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2).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외국인 며느리를 중심으로 한 부부 갈등 및 배우자 및 자녀, 시어머니와의 부적응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Seong & Hwang, 2013). 다문화가정의 화목하고 행복한 삶은 결혼이주 여성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가족문화를 만드는 교육적 접근이나 가족지원에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간과되어 왔다(Kim, Park, & Sun, 2009).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주요어 : 다문화가정,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노인우울

* 본 논문은 2015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처 E-mail: esjung@ptu.ac.kr)

투고일: 2017년 5월 30일 수정일: 2017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16일

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Kim, Park, & Sun, 2009). 특히 시어머니들의 고부만족도와 고부갈등을 파악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노인우울에 대해 조사 연구하여 다문화가정의 관계 회복의 중심점이 되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파악하고, 노인우울수준에 따른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노인우울을 파악한다.
- 둘째, 노인우울수준에 따른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파악한다.
- 셋째,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노인우울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노인우울을 파악하고,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충남,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만 65세 이상의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로써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보건소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 등록된 자료 하였다. 기관 내 사례관리자,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하여 연구목적과 내용 및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문지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거부, 중단할 수 있음과 연구가 종료된 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analysis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예측변수 3개

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Cohen이 제시한 중간효과 크기 .15, 검정력 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수는 74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92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 응답에 불완전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총 89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

● 노인우울 The Cente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본 연구에서는 노인우울증의 지역사회 역학조사용으로 1971년 미국 정신보건연구원(Radloff, 1977)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한국판 CES-D로 수정·보완한 도구(Cho & Kim, 1993)를 사용하였다. 불면증, 식욕부진 등의 신체적 증상 및 무력감, 절망감 같은 노인우울한 정서 등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으로 0점에서 3점까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우울증상 수준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16점 이상은 임상적 노인우울수준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고부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만족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Olson과 David(1982)의 「ENRICH」(Enrich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척도를 Song(1993)이 수정하여 시부모관계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hin(2012)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고부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부만족도 척도는 고부관계만족도 7문항과 고부갈등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부간의 만족도와 갈등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고부관계만족도의 기존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고부갈등의 기존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에 기초하여 Lee(1996)가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척도를 개발하였고, 이를 Lee(2007)가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ee(2007)의 척도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영역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5점 평가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 스트레스 대처전략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Kim(1997)의 노년기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의 대처방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종교, 사회적 지원 5문항, 적극적 태도 6문항, 소극적 태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 수준은 높고, 기존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이었다.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

자료수집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수집하였다. 불완전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최종 수집된 자료는 89부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우울과 노인우울수준에 따른 고부관계만족도, 고부갈등,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노인우울과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으며, 노인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우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60대 44명(49.4%), 70대 34명(38.2%), 80대 이상 11명(12.4%) 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59명(66.3%), 사별 30명(33.7%) 이었으며, 며느리와 의사소통정도는 잘됨 46명(51.7%), 잘 안됨 25명(28.1%), 매우 잘됨 15명(16.9%) 이었다. 며느리 나라에 대한 이해정도는 이해됨 36명(40.4%), 안됨 41명(46.1%) 이었고, 동거상태는 어르신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 31명(34.8%),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41명(46.1%), 어르신 혼자인 경우 15명(16.9%) 이었다. 며느리 나라는 베트남 44명(49.4%), 필리핀 15명(16.9%), 조선족 14명(15.7%) 이었고, 며느리 국적은 한국 40명(44.9%), 베트남 21명(23.6%), 필리핀 9명(10.1%) 이었다. 노인우울수준은 정상군 53명(59.6%), 위험군 36명(40.4%)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우울을 비교한 결과 직

업이 있는 경우($p=.021$),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p=.032$), 며느리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p=.022$),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p<.001$), 혼자 사는 경우($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노인우울 수준에 따른 고부만족도, 고부갈등,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노인우울 수준에 따른 고부만족도, 고부갈등,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문화적 충격($p<.001$), 지각된 차별감($p<.001$), 지각된 적대감($p<.001$), 스트레스 대처전략 하위요인인 소극적 대처($p<.001$)에서 우울 위험군과 정상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노인우울, 고부만족도, 고부갈등,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과의 상관관계

종속변인인 노인우울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우울과 고부만족도($r=-.38, p<.001$)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우울과 고부갈등($r=.46,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문화적 충격($r=.52, p<.001$), 지각된 차별감($r=.53, p<.001$), 지각된 적대감($r=.43, p<.001$), 스트레스 대처전략 하위영역인 소극적 대처($r=.52, p<.001$)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노인우울에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모델의 적합도($F=20.22$)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1.23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며, VIF가 모두 1점대로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를 단계별 방법으로 시행하였을 때 각 모형별로 투입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부터 투입되었다.

투입된 변인들이 설명하는 노인우울의 변량은 50.4%이었다.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각된 차별감($\beta=.36$), 소극적 대처($\beta=.26$), 건강상태($\beta=.25$), 동거상태($\beta=.3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중 지각된 차별감이 시어머니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1> Elderly depression in accorda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9)

| Classification | | N(%) | M±SD | F | ρ | Scheffe |
|--|--|------------|------------|--------|--------|-----------------|
| Age | ≤69 | 44(49.4) | 14.6±1.79 | 2.58 | .081 | |
| | 70-79 | 34(38.2) | 10.5±10.24 | | | |
| | 80≤ | 11(12.4) | 19.0±14.44 | | | |
| | Total | 117(100.0) | 71.0±7.58 | | | |
| Married state | Married | 59(66.3) | 13.0±11.86 | 0.41 | .525 | |
| | Bereavement | 30(33.7) | 14.7±11.88 | | | |
| Education | Illiteracy | 8(9.0) | 10.6±14.74 | 1.28 | .285 | |
| | Be able to read | 12(13.5) | 10.9±12.17 | | | |
| | Elementary school | 32(36.0) | 11.8±10.51 | | | |
| | Middle school | 14(15.7) | 18.7±12.47 | | | |
| Religious | High school | 23(25.9) | 15.4±11.69 | 1.56 | .216 | |
| | Catholic | 18(20.2) | 11.5±12.73 | | | |
| | Christianity | 19(21.3) | 17.7±12.09 | | | |
| Job | Buddhism | 52(58.4) | 12.8±11.28 | 4.04 | .021 | b<c, c<a |
| | Job ^a | 30(33.7) | 18.2±11.44 | | | |
| | Part time ^b | 29(32.6) | 8.6±11.79 | | | |
| Health state | Non ^c | 30(33.7) | 15.8±11.08 | 3.06 | .032 | d<c<b<a |
| | Bad ^a | 14(15.7) | 20.0±14.73 | | | |
| | Comparatively bad ^b | 27(30.3) | 15.7±10.29 | | | |
| | Comparatively good ^c | 39(43.8) | 10.9±10.67 | | | |
| Communication | Good ^d | 9(10.1) | 8.7±12.29 | 1.97 | .124 | |
| | Completely be not understanding | 3(3.4) | 16.0±1.73 | | | |
| | Be not understanding | 25(28.1) | 18.2±13.11 | | | |
| | Understanding | 46(51.7) | 11.6±10.82 | | | |
| Daughter-in-law's nationality understand-ing state | Completely be understanding | 15(16.9) | 11.3±12.27 | 3.39 | .022 | d<c<b b<a |
| | Completely be not understanding | 6(6.7) | 24.7±5.53 | | | |
| | Be not understanding | 41(46.1) | 15.3±12.44 | | | |
| | Understanding | 36(40.4) | 10.3±9.64 | | | |
| Financial state | Completely be understanding | 6(6.7) | 10.2±11.21 | 9.05 | <.001 | c<d, b>a>d |
| | Bad ^a | 8(9.0) | 21.2±9.65 | | | |
| | Comparatively bad ^b | 23(25.8) | 21.3±11.28 | | | |
| | Comparatively good ^c | 47(52.8) | 8.7±8.97 | | | |
| House mate | Good ^d | 11(12.4) | 12.5±14.75 | 5.40 | .002 | d<c<b, c<b<a |
| | Alone ^b | 15(16.9) | 21.2±9.09 | | | |
| | Together a marriage partner ^b | 31(34.8) | 16.0±12.11 | | | |
| | The elder and the couple ^c | 41(46.1) | 9.5±10.93 | | | |
| Daughter-in-law's country of birth | The elder and the single ^d | 2(2.1) | 3.0±0.00 | 1.75 | .146 | |
| | Vietnam | 44(49.4) | 12.1±11.72 | | | |
| | Philippines | 15(16.9) | 20.1±12.16 | | | |
| | China | 14(15.7) | 12.6±12.88 | | | |
| | Japan | 4(4.5) | 18.0±10.89 | | | |
| Daughter-in-law's nationality | Etc | 12(13.5) | 10.5±8.88 | .68 | .638 | |
| | Korean | 40(44.9) | 13.2±12.86 | | | |
| | Vietnamese | 21(23.6) | 14.4±13.04 | | | |
| | Filipino | 9(10.1) | 18.1±13.36 | | | |
| | Chinese | 8(9.0) | 8.9±9.33 | | | |
| Depression | Japanese | 5(5.6) | 16.2±10.26 | 237.04 | <.001 | |
| | Etc | 6(6.7) | 10.2±9.77 | | | |
| Depression | Normal group | 53(59.6) | 5.3±4.58 | | | |
| | Risk group | 36(40.4) | 25.8±7.96 | | | |

<Table 2> Comparison of satisf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differences of coping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elderly depression level (N=89)

| Classification | | M±SD | Depression | | t | p |
|---|--------------------------|------------|---------------------|-------------------|-------|-------|
| | | | Normal group (M±SD) | Risk group (M±SD) | | |
| Parents-in-law & Daughter-in-law satisfaction | Total | 20.1±4.26 | 21.1±4.45 | 18.7±3.39 | 2.72 | .008 |
| | | | | | | |
| Parents-in-law & Daughter-in-law conflict | Total | 17.9±5.02 | 16.7±4.84 | 19.7±4.81 | 2.85 | .006 |
| | | | | | | |
| Cultural adaptation stress | Cultural shock | 4.4±1.93 | 3.8±1.67 | 5.3±1.97 | 3.83 | <.001 |
| | Perceived discrimination | 15.4±5.86 | 13.2±4.52 | 18.7±6.10 | 4.93 | <.001 |
| | Perceived Hostility | 14.2±4.76 | 13.1±4.34 | 15.7±4.95 | 2.64 | .010 |
| | Total | 34.0±11.54 | 30.1±9.49 | 39.8±11.98 | 4.24 | <.001 |
| Stress coping | Religious social support | 12.6±4.09 | 12.4±3.45 | 12.8±4.93 | .41 | .682 |
| | Active coping | 19.5±4.37 | 19.3±4.70 | 19.6±3.88 | .27 | .791 |
| | Passive coping | 12.4±3.28 | 11.4±2.92 | 14.1±3.13 | 4.15 | <.001 |
| | Total | 44.5±7.38 | 43.1±7.21 | 46.4±7.28 | 2.14 | .035 |
| Depression Total | | 13.6±11.83 | 5.3±4.57 | 25.7±7.96 | 13.96 | <.001 |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lderly depression and satisf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coping strategy (N=89)

| Classification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 Parents-in-law & Daughter-in-law satisfaction(1) | r | 1 | | | | | | | | | | |
| | p | | | | | | | | | | | |
| Parents-in-law & Daughter-in-law conflict(2) | r | -.75 | 1 | | | | | | | | | |
| | p | <.001 | | | | | | | | | | |
| Cultural shock(3) | r | -.51 | .53 | 1 | | | | | | | | |
| | p | <.001 | <.001 | | | | | | | | | |
| Perceived discrimination(4) | r | -.61 | .56 | .76 | 1 | | | | | | | |
| | p | <.001 | <.001 | <.001 | | | | | | | | |
| Perceived hostility(5) | r | -.58 | .58 | .62 | .78 | 1 | | | | | | |
| | p | <.001 | <.001 | <.001 | <.001 | | | | | | | |
| Cultural adaptation stress(6) | r | -.64 | .61 | .81 | .96 | .92 | 1 | | | | | |
| | p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 | | | |
| Religious social support(7) | r | .05 | -.10 | -.01 | .04 | -.05 | -.01 | 1 | | | | |
| | p | .653 | .365 | .948 | .705 | .645 | .993 | | | | | |
| Active coping(8) | r | .31 | -.25 | -.11 | -.21 | -.25 | -.23 | .28 | 1 | | | |
| | p | .003 | .017 | .324 | .046 | .019 | .032 | .008 | | | | |
| Passive coping(9) | r | -.27 | .32 | .36 | .40 | .31 | .39 | -.16 | .08 | 1 | | |
| | p | .013 | .003 | <.001 | <.001 | .003 | <.001 | .124 | .430 | | | |
| Stress coping strategy(10) | r | .09 | -.06 | .09 | .08 | -.04 | .04 | .65 | .78 | .40 | 1 | |
| | p | .387 | .549 | .386 | .478 | .737 | .714 | <.001 | <.001 | <.001 | | |
| Depression(11) | r | -.38 | .46 | .52 | .53 | .43 | .54 | -.01 | -.03 | .52 | .20 | 1 |
| | p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897 | .749 | <.001 | .059 | |

논 의

본 연구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기의 어르신이 다문화 가족의 시어머니가 되면서 며느리와의 갈등, 다른 문화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파악하고,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관계 회복의 중심점이 되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elderly depression of parent-in-laws in multi cultural families (N=89)

| Model | Classification | B | β | t | ρ | R | R ² | Adj R ² | F |
|-------|-----------------------------------|-------|---------|-------|--------|------|----------------|--------------------|-------|
| 1 | Constant | -3.05 | | -1.26 | .21 | .542 | .294 | .288 | 47.87 |
| | Perceived sense of discrimination | 1.06 | .54 | 6.92 | <.001 | | | | |
| 2 | Constant | 10.18 | | 2.62 | .01 | .623 | .388 | .377 | 36.13 |
| | Perceived sense of discrimination | .92 | .47 | 6.22 | <.001 | | | | |
| | Housemate | -4.60 | -.32 | -4.19 | <.001 | | | | |
| 3 | Constant | 19.02 | | 4.22 | .01 | .668 | .447 | .432 | 30.43 |
| | Perceived sense of discrimination | .88 | .45 | 6.26 | <.001 | | | | |
| | Housemate | -4.89 | -.34 | -4.64 | <.001 | | | | |
| | Health state | -3.03 | -.24 | -3.47 | <.001 | | | | |
| 4 | Constant | 12.37 | | 2.65 | .01 | .710 | .504 | .487 | 28.51 |
| | Perceived sense of discrimination | .69 | .36 | 4.86 | <.001 | | | | |
| | Housemate | -4.87 | -.33 | -4.87 | <.001 | | | | |
| | Health state | -3.05 | -.25 | -3.67 | <.001 | | | | |
| | Passive coping | .74 | .26 | 3.61 | <.001 | | | | |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우울은 평균 13.6점이었으며, 16점 이상의 임상적 노인우울수준을 의미하는 위험군은 36.0%이었다. 이는 Kim과 Kim(2013)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정 노인의 노인우울수준이 평균 27.3점이었고, 82.4%에서 위험군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낮지만 Kim 등(2009)의 선행연구에서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우울 유병률이 15%이었는데 이보다는 상당히 높은 결과이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Kim(2014)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연령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높은 노인우울 유병률은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상담과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우울 예방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하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우울은 직업상태, 건강상태, 며느리 나라의 이해정도, 경제상태, 동거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보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울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수반되는 일상수행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함으로써 자아존중감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Kim & Kim, 2007). 건강상태는 좋지 않을 때가 좋을 때보다 노인우울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Kim & Kim, 2013)와 일치한 결과였으며, 며느리 나라 이해정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노인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선행연구(Cho, 2009)와 일치한 결과로, 며느리 나라에 대한 언어, 관습, 음식, 경제적 수준 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같이 생활해야 하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여겨지며,

며느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 때 노인우울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된 Kim과 Kim(2013), Lee(2012)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결혼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서부터 아들 내외의 생활비,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집 송금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부담과 갈등(Yim, 2012)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어르신이 혼자 사는 경우가 독거가 아닌 경우보다 노인우울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Lee, 2012)와 일치하는 결과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손녀, 자식과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관계유지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강화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Arzu, Hulya, Nuri, & Seval, 2008).

연구대상자의 노인우울 수준은 다른 문화를 가진 며느리를 통해 문화적 충격을 받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차별감과 적대감을 느낄 때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우울과 문화적 충격, 지각된 차별감 및 지각된 적대감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부만족도와 고부갈등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동거상태, 지각된 차별감,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생활수준 및 가족 내 지위 저하 등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정체성 및 실제적 상황 적응력이 더욱 취약한 경우가 많

고, 자신이 성장해온 환경과 다른 상황에 처해지면 그동안 고수해왔던 전통적 가치의 와해 및 새로운 가치의 수용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Lee, 2007) 노인우울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혼자 사는 경우에는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외로움과 허무함이 가중되리라 본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지각된 차별감은 시어머니가 개인의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외국인며느리를 돕으로써 느끼는 차별과 편견, 보상과 대우 및 동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Park, 2013)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보호해 주고 애정을 주며 존경해 주고 가치 있는 존재라 여겨주고 믿음만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느끼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Park, 2013) 사료된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경우 노인우울 수준이 높았는데 선행연구(Kim & Kim, 2013; Park, 2013)와 일치한 결과이다. 가부장적 성문화로 인하여 남성은 적극적, 능동적, 명령적,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반면, 여성은 소극적, 수동적, 순종적, 방어적인 성향을 갖으며(Shin, 2013), 특히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경우 대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혼자 속으로 삭히거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등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참고 견디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 주로 소극적 대처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에 불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Shin, 2013)으로 사료된다. Lee(2007)의 연구에서도 비록 측정된 도구는 다르지만 적극적 대처보다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신체화 증상이 높아졌고, Son(2004)의 연구에서도 소극적 대처가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들은 생활스트레스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여 극복하는 힘이 극히 미약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허약한 대처는 그들의 노인우울을 증가시키고 결국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Kim & Lee, 2008), 삶 속에서 각 개인이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만 65세 이상인 시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고부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파악하고,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배우자가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스트레

스 대처전략의 소극적 대처로 나타났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이웃으로부터의 지각된 차별감은 주변사람들과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와 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언어 교육, 상대방 입장 되어보기 등 다문화가정의 시부모를 대상으로 노인우울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언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입장이 다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시부모간의 비교연구와 중재프로그램 적용 후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References

- Arzu, S., Hulya, O., Nuri, D., & Seval, G. (2008). Family, close relatives, friends: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people. *Educational Gerontology, 34*, 890-906.
- Cho, H. S. (2009). *A study on satisfactions by foreign women and their mothers-in-law with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acculturation stres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cheongnam-do.
-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 Gong, E. S. (2009). A case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a korean mother-in-law and a vietnamese daughter-in-law.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8*(1), 123-134.
- Kim, H. U., & Kim, D. J. (2007). Multi-culture and its educational challenge in korea.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4*(3), 153-176.
- Kim, J. E., & Kim, H. M. (2013). Depression among elderly in multi cultural familie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1), 143-162.
- Kim, J. I. (2014). Predictive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status, physical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f elders in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6*(3), 231-241.
- Kim, J. Y., & Lee, J. M. (2008). The relationship of life-stress and depression between the poor elderly women and ordinary elderly women -focus on control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9*(1), 339-420.
- Kim, K. H., Park, G. S., & Sun, J. J. (2009). Stress of mothers-in-law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1*(6), 639-651.
- Kim, O. H. (199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life according to the stress the aged persons and their ways of management. *Sunchon National University Journal, 2*(1), 29-68.

- Lee, E. H. (2012).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mental health of korean mothers-in-law with foreign daughters-in-law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daughters-in-law and mothers-in-law*.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 J. (1996).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The Journal of Yonsei Educational Research*, 9(1), 157-176.
- Lee, W.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ways of coping with stress, physical symptoms, and life-stressors in women religio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 culture families, 4-10.
- Mo, S. H., & Lee, J. Y. (2002). A study on the stress and the coping behavior of the elderl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65-80.
- Olson, D., & David. H. (1982). Enrich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St. Paul, Minnesota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1(1), 137-148.
- Park, M. 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es of mothers-in-law and their life satisfaction on daughters-in-law in multi 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Jeollanam-do.
- Park, B. K., & Noh, P. S. (2014).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ense of pressure shown from the family adjustment experience of mothers-in-law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 250-26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e Psychological Measurement*, 1(1), 385-401.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eong, E. Y., & Hwang, S. T. (2013). A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ping strategies, mental health in multi cultural famil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8(1), 243-256.
- Seong, E. Y., Kwon, J. E., & Hwang, S. T. (2012).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s of multi 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7(3), 363-383.
- Shin, D. H. (2012). *The effect of mother-daughter-relationship which the mother-in-law of multi cultural families and cultural adjustment stress on her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cheongnam-do.
- Son, M. O. (2004). Influence of teachers'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on the anxiety and psychosomatic sympt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Song, H. Y. (1995). A study on the stress of parent-in-law caregiving.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3), 115-123.
- Yim, S, R. (2012). *A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in-law and Foreign Daughters-in-law in the Multinational Family-Focused on Sun Cheo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Effects of Satisfaction Lev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cculturative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Elderly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Jung, Eun-Sook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Pyeongtaek University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leve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conflicts between them, acculturative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elderly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89 mothers-in-law, aged 65 or older,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a foreign daughter-in-law.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hen were used to conduct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1.0. **Results:** This study found several factors contributing to depression of mothers-in-law in multi-cultural families. Those factors include living alone without a spouse, poor health, a high level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 passive reaction in term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Conclusion:** A sense of discrimination perceived by the mothers-in-law having a foreign daughter-in-law implies that the people around them and the community should make efforts to reject distorted perspectives and remove prejudice against foreign daughters-in-law. In addition, the mothers-in-law should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to use more active and posi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in a stressful situation with the foreign daughter-in-law.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Acculturative stress, Stress coping strategies, Elderly depress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Pyeongtaek University fund in 2015.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g, Eun-Sook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Pyeongtaek University
Seodong-daero, Pyeongtaek-si, Gyeonggi-do, 3825, Korea
Tel: 82-31-659-8298 Fax: 82-31-659-8011 E.mail: esjung@ptu.ac.kr